

만남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일출의 뜨거운 햇살이 차가운 겨울바다를 비추고 있는 아침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 비상하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2월 목회력

- 01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2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07 금 ·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
- 09 주일 · 제직회
- 09 주일~14 금 · 포이메네스 목회자영성수련
- 14 금 ·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
- 16 주일 · 제직부흥회, 상담부 공개강좌, 심방준비회
- 21 금 ·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금요기도회
- 22 토 ·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 23 주일 · 사회봉사주일

만남

2025년 2월호
통권 611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지금, 80주년부터 100주년까지 김운성

특집 100년을 향한 거룩한 비상

- 05 100년 여정의 문턱, 믿음으로 전진 박지운
- 07 부흥의 새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선교 이태식
- 10 새아기·새가정...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만남 그리고 사람들

- 12 초임 제직부서장 신년 포부①
- 18 신임 안수집사 간증

영락 글로벌

- 20 신짜오! 베트남어 예배 중 팜티프영탄
- 22 봉주르 파리! 이곳은 불어 성경반 김영란

다음세대 / 청년광장

- 24 고등부 겨울수련회 “힐링캠프” 광상진
- 27 대학부수련회 간증 임세용, 류화평
- 30 청년부? 이젠 청년회! 여태공

영락의 울타리

- 33 영락과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들 김모세
- 36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것 김대준
- 38 청일점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죠 심두연
- 40 은혜의 때에 상담대학으로 부르신 하나님 김현희
- 42 2.7g 탁구공에 담긴 주님의 향기 한철형
- 44 행복 100세의 필수조건 ‘척추 건강’ 김은상
- 46 영락교회 예비기자로 활동을 시작하며
- 48 팔복(八福) 고윤숙

교회소식

- 49 신년예배, 신년기도회 개최 외
- 54 2025년 부서지도 전도사
- 56 모네 <인상, 해돋이>
- 57 영락시어터 2월 상영 영화



지금, 80주년부터 100주년까지

김운성 위임목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8)

기독교는 그 자체로 종말론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님의 말씀에는 종말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성도가 극심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주님의 재림을 토대로 한 종말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교회가 종말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는 국가를 천년왕국으로 생각한 경우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에 자유를 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소위 궁중 신학자들은 콘스탄틴 대제를 메시아에 비유하고, 그의 로마 제국을 천년왕국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 아래서 번영하는 기독교야말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종말 의식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상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과 러시아 제국으로 이어져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당시 교회는 종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의 풍요에 도취하여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천년왕국으로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황을 머리로 한 거대한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중세 가톨릭교회를 천국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중세 당시 교황의 위세는 대단해서 황제가 결혼하거나 전쟁할 때,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교황의 위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소위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1075년, 황제의 주교 서임권을 둘러싸고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황제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교황은 황제를 파문했습니다. 그 결과 황제는 추운 겨울 알프스의 고갯길을 넘어 카노사성(城) 밖에서 맨발로 사흘이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영적 능력을 잃

어버린 교회는 현실을 즐겼습니다. 종말 신앙을 상실한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든다면 근대세계 자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이성의 사용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은 근대의 꿈이었습니다. 근대 세계관은 인간 이성²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진보를 추구하고, 이는 낙관주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간의 죄성과 거기서 비롯된 한계를 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모두 죽었으며,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교훈으로 전락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처지를 망각한 결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류가 교회 역사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흔히 종말을 미래의 일로 여기며,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말에는 미래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미래로 미뤄놓으면, 실존적으로는 종말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종말>에서 <이미 와 있는 종말>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의 기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난 이미 지금 좋아>로, <그날이 오면>에서 <오늘이 그날>이라는 생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80주년을 맞이한 영락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부족함이 많지만, 100주년이 되면 더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

*종말 신앙 오류 반복해온 교회의 역사
미래형 종말, 현재로 끌어당기는 게 중요
다가오는 100주년 더 아름다워지려면
80주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행복해야*

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80주년인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의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여기서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로 가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현재의 영락교회가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영락교회가 천년왕국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여 도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점이 많지만, 오늘 여기에도 이미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오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손을 마주 잡는 악수에 사랑이 흐르고, 섬김의 몸짓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때, 종말이 오늘이어도 두렵지 않고, 다가오는 100주년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80주년에서 100주년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행복함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 백성이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길 원합니다. 오늘 깨어 있어 행복한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종말 신앙입니다. **만남**

#100년을 향한 거룩한 비상

은혜로 맞은 80주년! 6.25 전란 와중에 터 세우고 뿌리내려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이 실천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은 100년을 향한 거룩한 비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믿는 자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끄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실천하고, 선교 사명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역은 다음세대의 성경적 양육, 그리고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책무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다가올 100년 역시 아름답게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100년 여정의 문턱, 믿음으로 전진

을사년에 마주한 을씨년스러운 새해

새로 받은 달력을 벽에 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장을 넘겨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많은 다짐과 빛나는 포부는 1월의 서리처럼 쉽게 녹아버리기 십상이지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을씨년스러운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는 을사년(乙巳年)이라고 하더군요.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해로부터 60갑자가 두 바퀴 돈 것입니다. 1905년은 참 암울했던 시기였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나라의 주권을 잃고, 앞날이 불투명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무력감과 좌절감이 나라 전체를 휘감았지요. 거기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활기차고 기쁘게 시작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박지운 목사
중구·용산교구
홍보출판부

마주한 현실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K컬처의 눈부신 약진에 우리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우리를 냉혹하게 내리누르는 현실의 벽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토록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청년들의 좌절과 노인들의 고독,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 갈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극단의 결과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드리워져 풍전등화와 같은 사태를 마주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120년 전 선조가 외세의 압박 속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비슷한 감정을, 우리는 지금 내부적 위기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낙담과 좌절의 때일수록 필요한 건 바로 믿음

사실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가던 시대 대부분도 을씨년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던 최초의 때가 그러했고, 이방인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족장 시대가 그랬었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두말할 바 없으며, 자유를 향한 광야의 여정은 어찌 수월했겠습니까? 욥, 다니엘, 에스겔 등 그 누구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첫 번째 성탄절 시기도 그러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칠혹 같은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셨으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났

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고린도후서 4:8) 고백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길을 찾았듯,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을사늑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국 독립을 쟁취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새해를 장밋빛 희망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 또 다른 일 년을 맞이하는 것 자체에 낙담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1월 한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냈습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싸움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쓸쓸스러운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진정한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남』, 거룩한 여정 담아내는 귀한 그릇 되길

매년 반복되는 새해지만, 그럼에도 올해가 특별한 까닭은 수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던 8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80년의 매듭을 지으며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한 기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낸 후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지난 8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1973년 2월 창간되어 올해로 52주년이 된 월간 『만남』을 통해 구역장은 구역원과 연결되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교우들은 서로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만남』은 영락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만남』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과거의 사역을 마땅히 기억하되, 그간의 사역을 자축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취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의 80년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해 나가는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의 80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의 문턱에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만남』은 앞으로도 이 거룩한 여정의 기록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새로운 100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에서 『만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부흥의 새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선교

신년기도회(1일~3일)를 시작으로 부흥의 한 해를 시작하는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남녀선교회가 함께 2025년 선교 사명을 위하여 1월 18일 워크숍을 가졌다.

2월에는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사송영락교회 헌당식'이 열릴 예정이다. 개척교회를 담당하실 전혁 목사님은 지난해 12월 금요기도회에서 '배 안의 두려움에서 물 위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선교부는 MZ세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MZ세대에 해당하는 4남선교회, 4여전도회, 3040 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중보기도팀은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분기마다 취합하여, 선교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합하여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아울러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태식 안수집사
중구·용산교구
선교부 국내선교 차장

농어촌 선교는 <기도 중심, 현장 중심, 농어촌 목회자 중심>이란 구호 아래 농어촌교회를 위한 '섬김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교인 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교회 성장을 위하여, '지역 젊은이의 벤처 창업 연계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지원'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한 정책 컨설팅 지원' '교회 성장 기반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주축으로 사역하게 된다.

군선교는 <군선교 연합회를 통한 비전 2030 활동 지원>을 통해 '교역자 선교 활동 지원' '군부대교회 신·개축 및 보수 지원' '진중 세례 지원(연무대 교회 포함)' '군 전도 집회' '찬양집회 및 문서 전도' 등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군부대 선교 지원은 2여전도회 및 각 자치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원선교는 보성여중·고,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등 8개 학교를 후원한다. 올해 사역은 2월 영락기독교사대회를 시작으로 채플 지원, 신앙 수련회, 절기 예배, 학원 선교대회(10월), 조이 투게더 (JOY-Together, 학원별)를 계획하고 있다.



선교부, 신년기도회 열고 힘찬 출발

2월 12일 사송영락교회 헌당예배 열려
유학생 선교파트 만들고 한글교육팀 구성



또한, 국내 선교는 기관선교, 개척교회선교, 소단체선교 등 다양한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경찰병원, 농아인 선교방송, 한국교회 순교자기념사업회, 중부교 경협의회,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위원회, 도심 내 미자립 개척교회 증점 발굴 및 지원, 선교부에 등록된 소 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국내 선교사역 조직은 2025년 개편에 따라, 담당 목회자와 사역 봉사자 등이 많이 변경되었다.

선교부 조직은 '국내선교' '해외선교' '문화선교' '유학생 선교' 등 4개 선교 파트 및 4인 차장제로 변경 운영되며, 이에 더해 '유학생 선교' 파트를 신설하여 선교 활성화를 꾀한다.

국내선교에는 농어촌선교, 군선교, 학원선교, 기관

개척·소단체 등 4개 팀이 있다. 사송영락교회는 1월부터 개척교회로 운영된다.

해외선교는 해외선교팀, 선교훈련지원팀, 미디어총괄팀, 미디어선교지원팀 등이 있고, 러시아, 북인도, V국, M국, 동북아, 부룬디, 이스라엘 등 모두 7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또한 태국, 콩고, 러시아, 프랑스,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 아홉 분의 협동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명단은 주로 1면 하단 참조).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에 한 분의 네트워크 선교사가 계시며, 올해는 특별히 탄자니아 파송 선교사 한 분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해외·문화 유학생 선교...
타 부서들과 손잡고 교회연합정신 구현



문화선교에는 홍보기획팀, 문화사역팀, 문화교실 팀 등이 있다. 문화사역에는 위트니스, 스티그마, G.CROOS, 크로마하프, 미술 선교, 기독교 영화 등이 있고, 사역을 위해 음향, 조명, 분장·의상, 영상·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는 각종 절기 행사 시 공연과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며, 외부 활동으로는 군부대, 미자립 농촌교회, 기관, 영락 관련 기관, 유학생교회 등에서 공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유학생 선교 파트는 기획팀과 한글교육팀으로 구성하여, 러시아어 예배, 중국어 예배, 몽골어 예배, 네팔어 예배, 베트남어 예배, 미얀마어 예배 등을 돕는다.

교회창립 80주년에는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원칙 중 하나인 ‘교회연합정신의 구현’을 이루기 위해, 선교부 각 파트와 교육부, 음악부, 각 남녀 선교단체, 사회봉사부, 자원봉사부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고, 밖으로는 국내 선교 지원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남**



새아기·새가정...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새아기(생후 3개월 이내), 새가정(결혼 후 1개월 이내)은 매주 4부예배 중 첫 예배 축하를 받는다. 김운성 위임 목사의 축복 기도와 함께 온 성도가 함께 환영한다. 각 교구 전도사에게 신청하면 탄생 축하금도 받는다. 『만남』은 100년 여정의 동행자로 이번 호부터 축하 사진을 게재한다. (지난 해 12월 한 달간의 축하 사진)

새가정



- 1 이동민 장혜원
- 2 정일현 김예지
- 3 지정환 김유아
- 4 김이삭 송수민
- 5 유재식 손아진

새아기



- 1 이시온(이상문 조설아)
- 2 이은우(이기준 전슬기)
- 3 박연아(박창근 전소연)
- 4 송윤찬(송현우 배정윤)



- 5 안유민(안재명 조유연)
- 6 박 한(박희락 김다은)
- 7 이리재(이민규 이다정)
- 8 강하윤(강태권 장은진)



복음통일 그날까지...기도와 헌신

올해는 우리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난 80년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영락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선교부는 영락교회의 핵심 사역 부서 중 하나로써 복음통일의 비전을 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한민족을 향한 선교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시대적, 민족적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선교부를 통해 이루어진 많은 사역은 선배님들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 2025년에는 세 가지 주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①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 ② 탈북민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③ 한국 교회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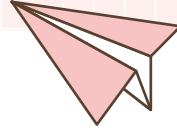
이러한 비전을 품은 북한선교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복음통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더 큰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탈북민들과 북한 지역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더욱 강화하며, 민족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락의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북한선교의 열매를 맺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영락의 성도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북한선교부의 사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김광식 장로
북한선교부장
성동·광진교구

말씀과 기도로 전도 소명 감당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부를 섬기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부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를 능동적, 집중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교부 소속이던 전도팀을 2019년에 전도부로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부에는 국내전도 활성화, 교인 배가 등 전문화된 전도사역을 담당하는 전도팀, 전도폭발 프로그램으로 평신도를 전도자로 훈련하는 전도훈련팀, 국내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도기획팀, 매주 금요일 직장인정오예배 및 영락교회 인근의 직장 신우회와 소그룹 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중교회팀 등 총 4개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마태복음 28:19)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종교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다음세대의 이탈, 교회의 내적 문제로 인한 배타적 생각, 세속화로 인한 영적 공허 상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국내전도와 전도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전도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이 함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2025년 전도부 사역이 영락의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남**

김무섭 장로
전도부장
서초교구



믿음 안에서 성도들 고민·아픔 위로

먼저, 몸 된 교회 상담부에서 2년간 제직 부서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담부는 믿음과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직장 및 교회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부서입니다.

상담부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전화상담사역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10:00~17:00) 140여 명의 상담원이 신앙, 인생, 가족, 부부, 이성, 사회생활, 정보제공 등을 상담합니다. 특별히 목회상담과 가정·청소년상담은 교역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혼상담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까지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상담은 분야별로 교통사고, 금융경제, 법률, 노무, 세무, 정신건강, 노인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자유인상담’을 통해 국내 생활 정착에 어려운 자유인들을 돕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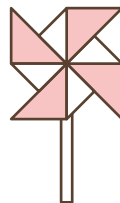
둘째, 교육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영락상담대학을 운영하여 전화상담원 양성과 자기 성장, 그리고 상담원이 지녀야 할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전화상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구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상담원 교육훈련을 일년 동안 진행하며,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부 공개강좌를 상·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조별 사례 나

눔과 워크숍을 통해 전화상담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그룹 집단상담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정사역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대상인 결혼준비교육, 다양한 연령층의 부부가 대상인 부부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섬기는 아버지의 역할을 세우는 아버지학교,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바람직한 어머니상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부모와 장인, 장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맺기, 노년 그리고 신앙적 성숙을 실천하는 시니어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교회 표어처럼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상담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남**



김철승 장로
상담부장
인천교구



『만남』, 교회 정체성 구현에 힘쓸 것

영락교회 행정장정에 나와 있는 홍보출판부의 업무는 “본 교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홍보 업무를 조정·지원하여 교회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설교에 관한 출판물, 테이프 제작 및 보급, 교회 소식지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테이프 제작 및 보급은 시대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문구일 테고, 성도님들께 가장 익숙한 것은 매달 받아 보시는 월간지 『만남』과 달력, 요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출판물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시대변화와 다양한 독자·사용자층의 선호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대변화는 콘텐츠와 전달경로(매체)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 위주였던 콘텐츠는 이미 사진과 동영상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달경로도 인터넷, 모바일, 각종 SNS 등이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홍보출판은 기본적으로 소통(communication)입니다. 현재 인쇄물과 전통적인 오프라인(off-line) 경로 위주로 소통하고 있는 홍보출판부의 주력 업무는 이런 점에서 다양한 변신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IT미디어부와의 협업도 필수적입니다.

소통은 교회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외부, 즉 다른 교회나 일반인, 사회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정체성(CI, church identity)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이제 구체화 과제가 된 영락 굿즈(goods) 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력 소식지인 『만남』이 교회와 성도님들 사이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통 경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위에 언급한 보다 근본적인 홍보의 과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 등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제직부서장으로 섬기게 된 홍보출판부가 본연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동역하는 모든 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만남**

김주현 장로
홍보출판부장
서대문·은평교구



신앙포탈 앱 서비스 만족도 높일 것

장로로 장립된 지 어느덧 3년, 첫 제직부서장으로 IT미디어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서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성장에 어떻게 IT미디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배운다는 자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IT·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5년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역으로, 우선 영락 신앙포탈의 안정화 및 기능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편리성, 다양성, 신속성, 맞춤형 서비스, 보안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10회 교단 총회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성도님들의 집중적 활동 시간대의 통신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유·무선 통신망 개선, DID시스템 개선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규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센터 구축은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교회 내의 분산된 미디어 역량의 통합과 더불어, 미디어 친숙도가 다른 세대별 특성에 맞는 신앙정보 서비스(신앙 강좌, 설교, 예배 영상, 찬양 영상 등)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4차



장 체제를 도입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미디어센터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크 미디어 스토리지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배영상 저장 공간의 포화상태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서비스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한적인 교육부서 예배영상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IT미디어 강화를 통해 영락 성도님의 신앙성장과 선교사역의 확장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새로운 임원들과 기존에 봉사하시던 제직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섬기며 힘차게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만남**

임영환 장로
IT미디어부장
응인·화성교구



50주년기념관·봉사관 리모델링 계획 중

시설관리부는 교회 모든 시설물의 신축, 개축, 대수선,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하여 당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따라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받는 부서입니다. 입찰, 계약, 시공, 준공 등을 실행하고 사후 관리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교회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행정처 시설관리팀의 소관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시설물들이 모두 노후화되어서 성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또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부에서는 장기수선관리위원회와 함께 건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50주년기념관 및 봉사관 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장 열악한 환경인 두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는 우선 교회 시설 관련 자료 및 관리 이력을 전산화하며, 50주년기념관 및 봉사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신규로 매입한 북별관의 누수 보수 및 정비, 베다니광장 철탑을 보수 및 정비합니다. 또, 50주년기념관 당회 회의실의 실내 환경과 방송 및 영상시스템 개선, 본당 음향 사각 지역의 보강 및 900Mz 무선마이크 신설, 그리고 선교관과 드림홀의 빔프로젝터를 점검해 보수나 교

체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할 사업으로는 기계설비(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펌프, 발전기 등)의 순차 교체, 본당 및 베다니홀의 음향시스템 개선, 드림홀의 영상시스템 개선, 통합방송중계 시스템 구축(본당, 베다니홀, 선교관, 드림홀 송출 관리), 50주년기념관 광장 보수 및 정비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직부서장으로 시설관리부의 책임자가 처음이다 보니, 교회 내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시설물이 눈에 들어오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보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가는 위치에 있으므로,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다운 외관을 유지하고 내면이 알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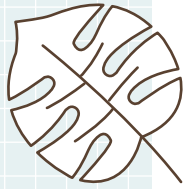
최선을 다해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교회 내 어디를 가시든지 편안하고 은혜받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남**



윤의성 장로
시설관리부장
노원교구



충성된 청지기 직분 성실히 감당



먼저 부족한 저에게 안수집사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과 영락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격려로 저를 응원하여 주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동반자인 교우님들께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락교회의 안수집사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히 다짐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항존직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 다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많은 책임감이 필요함을 느꼈고,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고집해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선교사님들의 지속적인 권면을 받아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린도후서 13:13)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 뒤를 이어 선한 무리의 일원이 되고자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안수집사가 되려고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교회창립기념일에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영락교회 안수집사로서 먼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길 감히 다짐해봅니다. 앞으로 직분자로서 사명을 부끄러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히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신동엽 안수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 해외선교팀장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살 것

우리가 존중함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존중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 존 비비어의 『존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도분들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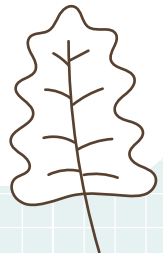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몸 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영락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주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80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만남**



최판곤 안수집사
서초교구
감사위원회 선교사회분과 팀장





신자오! 베트남어 예배 중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베트남인 신앙공동체
매주 오후 1시 봉사관 304호
신앙교육·정보교류 '복음사랑방'

한국 영락교회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어예배 성도들은 작지만 활기찬 공동체로, 고국을 떠난 베트남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배우며, 기독교 신앙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그룹은 2022년 1월 6일에 설립되어 베트남어로 예배드리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베트남 공동체의 영적 삶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적인원은 15명, 담당자는 규옥투안 전도사님입니다. 이 그룹의 비전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이주민과 유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도모하며 훈련함으로써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사역입니다. 베트남어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후,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거나, 영락 베트남어 예배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랑과 믿음을 나누며 밝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팜티프엉탄 성도
 베트남어 예배
 홍보출판부

지난 한 해의 주요 활동

2024년 한 해 동안 베트남어 예배는 여러 뜻깊은 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탄절 예배: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행사로, 베트남 유학생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경건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베트남어로 부른 찬송가가 울려 퍼지며, 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명지대학교 유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매주 심화 성경 공부를 통해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야외 활동: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 유명 명소에서 야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여름, 영락교회는 외국인 그룹을 위한 해변 여행을 주최하며, 한국어 경연 대회와 다양한 선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입 유학생 및 노동자 지원: 새로 한국에 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거주할 집 찾기부터 생활 적응까지 적극 지원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그룹의 의미: 베트남어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하나의 큰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남**



봉주르 파리! 이곳은 불어성경반



안녕하세요 Rien(리엔)입니다. Rien은 불어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불어성경반 리더를 맡고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던 중 Adrie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Adrien(아드리안)은 에펠탑을 지은 에펠이 사랑했던 여인으로, 그 여인의 이름 앞글자 A를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Adrien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으나 기도하던 중 앞 두 글자를 떼어 보니 Rien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Rien :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불어성경반을 맡게 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

나님께서 열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은혜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부르는 기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 했더니,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원로 교수님으로부터 젊은 제자 교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허름하고 시끄러웠던 강의실에서 새로 인테리어 된 강의실로 바뀌어 주셨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 했더니 멋진 분들을 멤버로 보내주셨습니다. 패션계의 하버드인 프랑스 S모드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 삼성 기획실 출신 권사님, 외환은행 미국지사에서 근무하시던 집사님, 철학과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 프랑스 와인 유통을 하시던 집사님, 심지어 프랑스 대사관 직원도 들르는 등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불어’라는 공통점으로 만났을 뿐인데, 하나같이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다양한 이야기거리, 자유를 중요시하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지적인 갈구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영란 성도
불어성경반 리더
홍보출판부

성경도 찬양도 불어로... 다양한 프랑스문화 체험활동도

전공이 아닌데 약기를 다루시는 분이 여러 분, 손재주가 많아 다양한 것을 손수 지어 선물하시는 분, 프랑스를 오가며 받거나 모았던 의미 있는 물건들을 선물하시는 분, 선물 받았으며 쿠키나 차와 같은 간식을 준비해오시는 분 등 날마다 풍성한 나눔이 오갔습니다.

성경은 루이스공(Louis Segond) 버전으로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어 나갔고, 한 달에 한 곡씩 좋은 찬양을 불어로 번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가끔 은혜 되는 찬양이 있다면 즉흥으로 부르기도 하고, 프랑스 관련 축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체험해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각자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포트럭파티(Potluck Party: Fête-partage)와 미니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는 불어로 암송하는 분께 작은 선물이 주어졌고, 방학 동안은 불어성경 필사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을 도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식당이나 현장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불어를 배우고, 프랑스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등 더욱 많은 문화체험과 복음에 필요한 불어 구절들을 공부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어권 국가들에 K-찬양과 메시지 전할 것

또한 작은 비전이 있습니다. 가톨릭, 이슬람 세계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불어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찬양과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사님 말씀에 불어로 번역을 붙이는 것이고, 향후에는 프랑스어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 올림픽을 통해서 보았듯이 프랑스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현지 교회는 대부분 가톨릭으

로, 개신교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다행히도 '한류'라는 흐름을 통해 많은 불어권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주변만 해도 불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 씀이나 찬양을 경험하여 뜨겁게 변화된다면 훌륭한 역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북아프리카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세네갈,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말리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캐나다의 퀘벡주와 일부 지역, 하이티, 뉴칼레도니아, 프렌치폴리네시아, 왈리사와 피티나 등 프랑스의 해외 영토 등에서 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어는 많은 나라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다만, '불어는 발음이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을 통해 금방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하던 분들도 곧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꽤 봅니다. 그러므로 불어권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오셔서 문화체험은 덤으로 누리시고, 따뜻한 교제와 유익한 시간을 경험하시고 비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불어성경공부

장소 : 50주년기념관 8층 유리방 eRoom2

시간 : 주일 오후 1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불어성경반 신청

힘들지?
우리 좀 쉬자!

2025 영락고등부 겨울수련회 “힐링캠프”



고등부 교사로 섬긴 지 15년여 동안 행사의 총무로 봉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준비와 섬김의 자리에 선 저는 항상 긴장과 고민,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임하곤 했지만, 지나고 보니 감사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2025년 고등부 겨울수련회 총무 선생님께서 섬길 기회를 제안받아 이영호 고등부 목사님과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 힐링하는 수련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 : 힘들지? 우리 좀 쉬자!’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넘쳐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모여 준비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준비팀 교사 모두가 토요일마다 모이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기도회의 김운성 목사님을 통해서 매번 위로하시고 독려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잘 시작했으니 끝까지 경주하라” 등 매번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더 힘써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예년보다 몇 주간 더 일찍 진행해야 하는 겨울수련회(1월 17~19일)였기에, 고1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법, 교회 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힐링해서 굳은살도 생기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곽상진 집사
고양·파주교구
고등부 교사

이른 일정, 적은 인원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저녁 집회에는 ‘나비워십팀’을 초청하여 예배했습니다. 이전에는 고등부 예배팀이 섬



겼지만, 이번에는 예배팀원도 예배자로 참여하여 힐링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첫날 받은 힐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련회의 총무였던 저는 긴장하고 더 민감하게 상황을 총괄해야 했지만, 여느 때보다 더 깊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이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입장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예배 안에서 뛰며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힐링의 은혜를 누렸습니다.(사진 1)

진정한 심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준비 중에 이영호 목사님은 수련회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

며 '진정한 심은 여행, 게임, 잠자기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예배하는 자리에는 진정한 심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인 제가 10대 학생들을 밤새 상대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저의 마음은 지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느꼈기 때문입니다.(사진 2,3)

첫날의 뜨거운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 삼삼오오 모여 집회에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캠핑장으로 꾸며진 드림홀에서 간식도 먹으며 밤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다니던 시절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련회의 밤은 항상 다양한 교제의 장이 펼쳐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힐링캠핑인 만큼 둘째 날 기상 시간을 10시로 정했지만, 전날 저녁 신청한 친구들과 담당 진행자와 함께하는 "~~~" 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교회부터 시청까지 청계천을 끼고 러닝하는 그룹, 새해 아침의 일출을 보러 남산 꼭대기로 등산하는 그룹, 실내 스트레칭, 목사님과 함께하는 티타임, 영화방 등으로 나누어 학생들





의 기호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토요일인 둘째 날은 학생들이 교제하며 친해질 수 있는 오전·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프로그램 사이에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라이브 키친'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브런치를 맛있게 먹은 학생들이 이어지는 학생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사진 4 5)

142대 학생회(위아다:We are diciples)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회 프로그램에서는 10개 조가 협동하여 일곱 가지의 게임 미션을 해결하여 점수를 획득하면서 주제 말씀 '심'을 만끽했습니다. 조 담당 선생님들도 조별 점수를 많이 획득하려고 열심히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협동심과 친밀감으로 저녁 집회에서 조원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나비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된 마지막 저녁 집회, 김종윤 목사님(나비워십 대표, 이천만나교회 담임목사)이 전한 메시지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 잃지 말자는 말씀에 지난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다시 뜨겁게 예수를 믿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상

황과 변화를 계획하는 지금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진 6)

15여 년 가까이 교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만든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학생, 알고있기는 하지만 학업과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양육하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시죠? 힘들지? 우리 좀 쉬어요! 진정한 심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라고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힘드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보세요!" 만남





주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방황하던 20대 초반의 저를 위로하신 주님

안녕하세요. 겨울수련회 4조 조장을 맡았던 46기 임세용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수련회 때 예배를 위해 애써주신 교역자분들, 지도위원님들, 학생회, 헤세드, 레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심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인 제가 조장으로 수련회를 섬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시며, 교회에 다닌 지 이제 3년 된 세례도 받지 않은 교인입니다. 이런 제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꼭 필요한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제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꿈도 없이 방황하고 있던 20대 초반인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리더와 smc 찬양대 총무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만드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역하는 중에도 힘든 이들을 도울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력을 키워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올해에 웰컴 리더라는 사역을 다시 하게 되면서 수련회 조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정착하며 받았던 총명한 은혜로 주일만 기다리는 교인이 된 경험을, 교회에 새로 오는 벗님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임세용 성도
대학부 웰컴마을

겨울수련회 조장으로 새벗님들 교회 정착 도와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조에는 두 명의 조원을 제외하면,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벗님들과 이제 막 스무 살 된 53기 벗님들 뿐이었습니다.

저의 능력에 비해 임무가 막중했기에 열심히 수련회 준비 기도에 임했습니다. 우리 조의 모든 벗님이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교회에서 잘 성장하여 믿음으로 꽃 피울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련회에서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허리가 아파서 등받이가 있는 맨 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예배드리니 이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에게 열광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한명 한명 다가가서 기도해주려 했던 저의 계획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뒤에서 혼자 우느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 벗님들 “교회가 낯설지 않아요” 고백에 먹먹

그렇게 수련회가 끝난 뒤, 후배들이 대학부에 잘 적응하도록 돕지 못했던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는데, 대학부에 처음 온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낯설기만 했던 이 공동체가 이제 나의 교회가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날 웰컴 리더와 수련회 조장으로 쓰셨구나!’ 느꼈습니다. 저 또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주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을 통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벗님들이 대학부 공동체에서 저처럼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벗님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앞으로 잘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

주님의 계획 확인한 ‘2박 3일 선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련회 참가

이번 겨울수련회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겨울수련회를 앞두고 사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학업과 과외를 병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고, 제 신앙도 밑바닥을 향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하던 말씀 읽기와 기도는 점차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저 해야만 하는 습관이 되었고, 주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굳이 수련회를 가야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련회를 가야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장이라는 역할도 맡게되었습니다.



류화평 성도
대학부 엘리야마을

조장인 제게 다른 방식의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

수련회가 시작되고나니 웬걸요, 제가 맡은 조가 유독 부분참



석을 하는 지체가 많아 조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조장으로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조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하는 고민과 함께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지 말걸 그랬나' 후회하며 빨리 2박3일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서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점차 조원이 모이면서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 조는 좋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모든 조원이 자발적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네가 하려 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할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듯 했습니다. 또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조 단톡방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하나를 주님께 배웠습니다.

지쳐 쓰러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이번 수련회는 이재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짧게 나누면,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2000년 전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

시 200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지만 유독 마음을 울렸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인도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베드로라는 믿음의 선진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피식 웃기도 하고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등 불신앙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께서는 오히려 다시 순종하고 돌아온 것을 의롭다 칭하셨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수련회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주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던 제게 따스하게 위로하시고, 괜찮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든든한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남**



청년부? 이전 청년회! 회의도 청년회장이 진행

교육부 내 행정적 자치조직으로... 내년부터는 재정 홀로서기도 추진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회 80대 '슈퍼왕스' 회장을 맡게 된 여태공입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남』 지면을 통해 인사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청년회 회장으로서 인사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7년에 영락교회의 새가족으로 등록한 후 적응하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쏠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싶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아우르는 '청년회의 독립'에 관한 논의는 2024년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오병훈 목사님과 중앙멘토단 김주헌 장로님을 중심으로 청년 리더들과 여러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타 교회의 성공사례에 관한 세미나에도 교역자 그룹과 청년 그룹으로 나누어 참석하며, 다른 교회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 독립 시 우려되는 점 등에 관해 질문도 하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보고 들은 정보를 취합하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2024년에는 청년회 독립의 기본 가이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오병훈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자문위원단의 최성준



여태공 집사
청년회 80대 회장



장로님과 자문위원분들과 함께 지난해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새해 첫 운영위 회의 청년회장이 주관

첫 번째 변화로, 청년회 회의의 주관을 변경하여, 기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담당하셨던 '멘토단' 명칭을 '자문위원단'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1월 첫 운영위원회에서 최성준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한 발 더 앞으로, 자문위원은 한 발 더 뒤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이전에는 청년회 운영위원회 및 정례회의 사회와 진행을 장로님과 부감 집사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2025년 1월 첫 운영위원회부터 청년회 회장이 주관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금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려고 보니 아직 교회 용어가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데뷔전이 참 쉽지 않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가' 하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버벅거렸는데, 다들 웃으시면서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영역에서 청년들이 더 많은 권한과 책임감을 품고 움직이고자 합니다.

연합으로 3040 신앙로드맵 공감대 형성

두 번째는 오병훈 목사님의 '3040 신앙로드맵'에 대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청년회는 청년회, 청년회는 청년회, 부부선교회는 부부선교회인데, 왜 연합해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실 뿐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발로 누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3040



신앙로드맵의 구체화 또는 실체화를 이루었다 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님이 어떤 방향성을 정해 열심히 하시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회 회장으로서 2025년 청년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오병훈 목사님께서 기획하신 '3040 신앙로드맵'에 청년회가 바탕이 되어 단단한 반석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는 취업·연애·결혼·출산 등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겪는 시기입니다. '푸를 청(靑)'을 쓰는 만큼 파란 봄을 닮은 우리 청년들이 영락교회의 각 교구 및 부서와 더 긴밀히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교회를 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독립, 그리고 2025년에 계획한 청년회의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락청년회가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세로 교회의 허리를 잘 구축하여 후배들에게는 더 좋은 선배로, 신앙의 선배님들께는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다음세대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회 2025년도 2차 자립 실행계획(2024 정책당회)

<2023 정책당회 '청년부 자립 로드맵'>

- 1) 1차 자립(2024) : 청년회 자치단체로 자립, 부장 등 지도위원과 예산 현 수준 유지·지원
- 2) 2차 자립(2025) : 전담 지도교역자와 청년회 임원진으로 운영, 재정적 지원 유지
- 3) 3차 자립(2026 이후) :
 - 점진적 재정자립을 통한 온전한 자립 추구
 - 1, 2차 단계별 자립 과정 중 예산지출 등 행정적 협조를 위해 제직부서(교육부) 내 자치단체 운영 고려

1. 청년회로 자립

- 1) 교육부 내 자치단체로서의 청년회(단위 부서 청년부 이중 구조는 삭제)
- 2) 청년회 자문위원단(현 중앙멘토단 해당, 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구성
 - 단장, 부단장, 지도권사, 서기, 회계 등
- 3) 필요시 자문단에 교회 행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규정 마련

2. 재정적 자립(준비)

- 1) 재정적 지원은 유지하되 청년부예배 헌금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 2024년 하반기부터 청년부예배 헌금 별도 집계
- 2) 예산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서와 구체적 사항 추가 논의

3. 3차 자립(2026 이후)

- 1) 재정자립을 통한 온전한 자립 추구
- 2) 청년부예배 헌금을 청년회 예산으로 사용

<기타 후속 조치>

- o 관련 규정 정비(행정장정, 교육부운영규정, 청년부활동내규, 청년회회칙 등) **만남**

자료 : 2024년 제48회 정책당회 자료집



영락과 함께한 감사의 시간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저녁 6시 10분, 핸드폰에 '2022년도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청빙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기쁨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차례로 전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뿌리 깊은 영락교회에서 배우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서초교구, 목양부, 그리고 한마음 찬양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임전도사 사역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영락교회에서 연을 맺은 교구, 부서 및 모든 분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시간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제가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감사함이 넘쳤던 몇 가지 사역을 연도별로 시간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2022년, 코로나도 우리의 신앙교제 막지 못해

2022년은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에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특별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경직복음학교 사역과 교구 행사였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락교회 공동체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경직복음학교는 한경직 목사님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배우고 이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는 소그룹 모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특별히 교구별로 성도님들을 모집하여 한 교구당 네 명의 교구 전도사가 인도자가 되어 한 달간의 삶을 함께 나누고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또한 서초교구 포함 네 개 교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바쁘게 사역하는 중에 한줄기 샘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이기 쉽지 않았음에도 한자리에 모여 하루하루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고, 그동안 대면하여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축하하며 격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성도님들과 얼굴을 맞대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그때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져 교회 안에서 뵈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한경직복음학교는 저에게는 무척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모세 목사
영락기도원





담당 전도사에게 있어 꽃이라 할 수 있는 교구 사역은 바로 교구 친교의 날과 성탄의 밤 행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구 전도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교구 성도님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교구 성도님들로부터 성탄의 밤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코로나 직후 18개 교구 중 첫 번째로 교구 행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선포하며 교구 지회장님들과 성실히 준비한 결과, 교구 식구들이 한마음 되어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맞이한 교구 행사를 함께 도와주셨던 교구 목사님과 지회장님, 그리고 교구 식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영락기도원 3주간 특별금요기도회 생생

2023년은 '영락교회에서의 제 모습이 조금은 단단해져 가는 기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도폭발 강의를 인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도 지속해서 사명을 실천해 왔고, 전도폭발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전도폭발 교육을 받았고, 이수 후에는 영락교회 전도폭발 2단계 강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청년부터 집사님, 권사님, 그리

고 타 교회 성도님들까지 다양한 색채를 띤 소모임 안에서 전도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경험한 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오히려 많이 배웠고,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영락기도원에서 3주에 걸쳐 특별 금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정은 다르지만, 과거 영락기도원에서 드렸던 산상기도회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개되는 집회였기에 많이 기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여서 그런지 영적인 충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님께서 뜨겁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는 저 또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은혜의 3주간을 보낸 기도회의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새겨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이어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2024년, 영락기도원 목사로 더 큰 사명 주서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보낸 마지막 해는 2년 동안 배우고 익힌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큰 집회를 주관하고 18개 교구를 총괄하며, 제직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교육하는 부서인 목양부에 소속된 은혜로 목회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역은 권사 청원을 위한 제직교육과정이었습니. 권사 직분을 희망하시는 67명 후보자의 12주 교육과정을 도우면서, 제직 청원 이수를 위해 열심히 임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예비 권사님들께서 교육과정 중에 배우신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히 쓰임 받

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한마음찬양반도 맡았습니다. 한마음찬양반은 영락교회 성도님을 대상으로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여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 은혜받으며 하나님의 영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 모두 즐겁게 찬양하며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아 삶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말, 다시 한번 감사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영락기도원 목사로 부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3년 전처럼 기쁨의 소식을 가족과 성도님들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과 좀 더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목회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기도원 사역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저를 통해 이루실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3년간 전임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것처럼, 영락기도원에서도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것

기도의 삶 결단한 첫 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매년 신년 초에 진행하는 기도드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주제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첫 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저 자신이 기도의 삶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특별금요기도회의 깊은 은혜와 말씀 속에서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서자 이미 찬양이 시작되었고, 청년부찬양단과 연합찬양대(할렐루야, 갈보리)가 인도하는 찬양이 깊은 영성과 잘 훈련된 모습으로 예배 분위기를 주도하며,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은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18절이었습니다. 곧바로 성경 봉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



김대준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홍보출판부

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말씀의 시간, 다니엘의 믿음에서 희망을 찾다

동춘교회 윤석호 위임목사님께서 '사자 굴에서 희망을 보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고 누구도 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이 직인까지 찍었지만, 다음 날 새벽까지 안전하게 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전하며, 자신의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 다니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



하게 여긴 다니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더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시작한 저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더욱 높여 주신다’라는 메시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해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자 굴을 바꾸시는 주님,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다니엘 같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매일 30분씩 기도의 삶 실천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우리는 회개의 기도, 희망의 기도, 돌파의 기도,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등을 드렸습니다. 기

도하는 동안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30분씩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처음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이 변화되고, 체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합 찬양단은 늘 기도와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하며, 한 곡의 찬양을 약 7~8분 정도 반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깊은 영성의 찬양과 교제로 마음을 열어 고백과 회개의 찬양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번 특별금요기도회는 저에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철가방 꼬마’ 구원하신 하나님 청일점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죠

샬롬!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에 있었던 구역장대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 늘 봉사하시는 구역장 및 권찰님들을 뵈었는데, 월간 『만남』을 통해 모든 분을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3:15 허반절)*

조손가정 출신... 동대문교회서 만난 하나님

저는 네 살 때 생모를 지병으로 잃고,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를 포기하고 곧바로 목공소에 취직하여 생계를 이어가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서울의 작은아버님댁에 의탁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어 신당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배달 그릇을 회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대문 근처에 야학이 있다는 소

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동대문감리교회, 그곳에서 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던 당시 선생님들은 신앙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 5년이 지난 1979년에 처음으로 중등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이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밤 10시까지 일해야 하는데도 오후 5시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제 주변을 통해 신앙 안에서 도와주신 분을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젖곤 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문전박대 당한 경험하기도

지금부터는 고양·파주교구 구역장 중 청일점인 제가 9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지내왔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구역장으로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등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구역예배를 드릴 때 잔뜩 긴장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궁극통’이라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찬송은 어플을 이용하고, 말씀은 첫째 주 금요권찰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반차를 쓴 후, 목사님께 양



심두연 집사
고양·파주교구 59구역 구역장



해를 구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TV에 연결하여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구역 식구 중 한 가정에서 문전박대 당한 경험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교구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구역장을 맡기 전 공직에 처음 임용된 후에는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잠시 망각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각종 질병을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장모님과 아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지금은 질병을 친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식구를 천국 안내하는 사명받은 자

구역장 직분을 맡고 나서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모두 열두 가정이 있는데, 그중 여섯 가정은 인터넷 예배를, 나머지 가정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식구들은 구역장인 저를 하나같이 아껴주시고, 가가호호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지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직장이 멀리 있어(칠곡군 왜관) 예전보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일이 챙

겨 드리고 있습니다. 심방도 하고, 안부도 물으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복돋우기도 합니다. 한 구역식구는 당뇨로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구역식구는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만남』, 오이코스 묵상노트, 기타 물품 등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모 그룹 회장은 생전에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각종 이유를 대며 못 한다고 하면 “해 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패러디해서 구역장님들께 “구역식구 섬겨봤어?”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식구 모두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영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역장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감으로 함께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만남**

은혜의 때에 상담대학으로 부르신 하나님

병들고 믿음 흔들리던 시기, 상담대학에 인도

가슴에 별 하나를 품고 살고 싶은 마음과 맑은 눈빛으로 나를 새롭게 씻어 주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로워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저에게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은 개인의 위기이자 마음의 위기이면서, 신앙적으로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씨름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즘음에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던 저의 가슴에 스치는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 한여름의 얼음냉수 같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의 상담자가 되셨죠

영락교회의 상담대학을 공부하고 있던 남편은 삶이 버거워 힘들어하는 저에게 상담대학 공부를 함께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물음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상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성경과 상담’ ‘상담이론의 이해와 실제’ 등의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품고 있던 물음이 저절로 이해되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상담자가 되셔서 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묻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학기 16주에 총 8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2년간 4학기 진행하는 수업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2년... 전화상담원 봉사 시작

작년 말에 2년 4학기의 상담대학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참된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짐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의

위기와 정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2025년 1월부터 전화상담원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의 때에 상담대학으로 인도하시고, 2년의 과정을 공부하게 하셔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3) **만남**

김현희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한국목회상담인증기관

2025년 1학기 **영락상담대학** 신입생 모집

1. 교육과정(희망과정 선택)

- ① 전화상담원 봉사자 양성과정(60세 이하 본교회 제직 : 9만 원)
- ② 자기성장 교육과정(본교회 교인 : 12만 원) * 희망과정으로 2년(4학기) 계속 이수

2. 교육안내

- ① 일시 : 2. 23. ~ 6. 15. (주일 2시~4시50분/16주)
- ② 방법 : 대면모임(1주, 16주) 실시간 증교육(2주~15주)
* 녹화영상 시청 : 교육시간과 봉사시간 중복 시 가능(확인서 제출)
- ③ 과목 : 이상심리학(8주), 기독교상담학(8주)

3. 접수 및 전형방법

- ① 제출방법 : 지원서 홈페이지(영락소식)에서 다운 후 작성.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2월 12일 오후 3시 마감)
- ② 전형방법(개별통보) : 서류심사와 면접(2월 16일)
- ③ 접수 및 문의 : 베다니광장 또는 상담부(봉사관 3층) 02)2280-0171 팀장 010-6269-2588

4. 기타 : 전화상담원 봉사자 양성교육생은 2년 4학기 수료 후 한국목회상담협회 기독교상담사 2급 자격 취득 가능

2.7g 탁구공에 담긴 주님의 향기



영락·새문안·종교교회 연합 첫 탁구대회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다. 주변 상황들이 마냥 평온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정치, 경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각 개인의 삶에 직접적 어려움이 다가올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영락교회 영탁스(영락 탁구스포츠 선교회) 제안으로 새문안교회, 종교교회, 영락교회 연합 탁구대회가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세 교회에서 출전하는 탁구 선수들이 마침내 2024년 12월 21일, 새문안교회에서 첫 번째 ‘새·종·영 탁구대회’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귀한 교제의 시간... 저마다 새겨진 감사의 추억

선교와 영혼 전도, 개인의 체력 단련 등을 목적으로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는 새문안교회 20명, 종교교회 12명, 영락교회 1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출전한 선수마다 대회를 즐기면서도 경기에 최선을 다했고, 교회별로 복식 5개 팀(남녀 혼합)끼리 맞붙어 매 경기 승점을 합

산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세 교회 연합의 이번 탁구대회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해 새로운 추억의 별이 아로새겨지길 기도한다.

탁구를 통해 복음전파 힘쓰는 영탁스

우리 교회 소속 ‘영탁스(회원 50명, 회장 김형태 안수집사)’는 2017년 1월 영락중학교 체육관에서 시작한 탁구 모임이 모태가 되었으며, 2019년 5월 김운성 위임목사님 기도로 정식 창립되었다. 체력 향상과 성도 간의 교제, 영혼 구원까지 탁구와 함께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된 영탁스는 매주 월요일, 지하 제2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운동하고 있으며, 초보자 레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탁스 네팔 청소년 탁구 대표 선수로 성장한 ‘영이’는 네팔에서 선교 활동 중인 고연희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영탁스와 함께 운동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다. 아울러 영탁스는 영롱회(청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탁구 모임) 후원 및 매년 탁구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영탁스는 ‘YTMM 양영자(올림픽 금메달 후 선교사로 활동) 탁구선교회’ 발단식에 초대되어 탁구를 통한 복음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영탁스는 작은 탁구공(2.7g) 안에 가장 큰 복음을 담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철형 집사
강남교구
대학부 지도위원



신앙, 건강, 부부관계도 좋아져 행복

‘한계’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함, 두려움, 아픔이 모여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신앙심, 건강, 부부 관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슬며시 다가오는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고민하던 이들이 고백한다. 영탁스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부부 사이도 좋아져 행복하다고….

그와 관련된 고백들을 들어보자.

회장: 탁구를 통해 각자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추적 역할을 영탁스가 담당하는 게 무척 기쁩니다.

회원 1: 그동안 겨우 주일 예배만 드려 교회에 자주 오지 않았는데, 지인 권유로 영탁스에 나왔습니다. 탁구를 같이 하며 만난 교인들을 통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 2: 몸이 좀 아파 혼자 운동하는 게 재미없었는데,



데, 영탁스에서 여러 성도와 어울려 운동하니 너무 즐거웠고, 그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 향기 전합니다

영탁스는 탁구를 매개로 설립된 선교 모임이다. 모임 취지에 맞게 영탁스는 개인의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2025년도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와 함께 탁구를 통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영탁스가 되길 기대한다. **만남**

행복 100세의 필수조건 ‘척추 건강’

허리 움직임 때마다 고통스러운 추간판탈출증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척추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척추뼈 사이에는 편평한 원반 모양의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안의 수핵은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이가 들면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것이 키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추간판의 퇴행이 진행되면 척추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허리를 움직이거나 힘을 쓸 때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나이가 들면서 수핵의 수분이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여, 추간판 내부에 있는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 바닥에 앉거나 장시간 의자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밖에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 우선 앉아서 물건을 몸 가까이에서 끌어다 놓고 잡은 다음, 무릎과 허리를 펴서 물건과 함께 서서히 일어나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조심... 비타민D 좋아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살짝만 넘어져도 척추에 골절을 입기 쉬우며, 심한 골다공증 환자는 주저앉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 골절된 환자 중 2/3는

의사를 찾아갈 정도의 통증이 없으나, 간혹 극심한 허리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는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노령에 접어들면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타민D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젓가락질 둔해졌다면 척수종양 전조일 수도

척수종양은 척수 안팎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발생하는 종양으로, 척추뼈, 척수 덮개, 척수, 신경 자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허리, 등, 어깨가 이유 없이 당기거나 아프게 된다. 척수종양의 통증은 밤에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디스크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잠자리에 편하게 누우면 증세가 완화되는 것과 구별된다. 통증 이외에도 걸을 때 몸의 중심잡기가 어려워지거나 배뇨장애, 요실금,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젓가락질이 둔해지는 등 감각과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척수종양은 수술하다 자칫 신경을 건드리면 전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으므로 치료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라는 속도가 느린 척수종양의 경우 수술 시기를 되도록 늦추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척수종양 수술을 결정할 때는 여러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고령화 따라 증가하는 척추 질환
골다공증 심해지면 척추건강 치명적
바른 자세, 무거운 물건 들기 조심
통증 한 달 이상 지속땀 병원진찰을



멀티태스킹 피하고 긍정적 사고 중요

척추에 발생하는 압을 척추종양이라고 하며, 척추뼈 내에 비정상적인 조직 덩어리가 형성되는 질환이다. 척추종양은 크게 원발성 종양과 전이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종양은 척추뼈 자체에서 처음으로 종양이 발생한 경우이고, 전이성 종양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암)이 척추로 옮겨온 경우인데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으로부터 옮겨온 경우가 많다. 척추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원인,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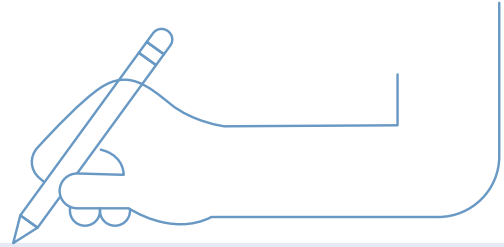
100세 시대에 척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늘 바른 자세,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무거운 물건 들기를 조심하며, 멀

티태스킹을 피하고 너무 바쁘게 살지 않도록 주의한다. 노령에 접어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D를 복용하도록 한다. 허리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디스크 외의 다른 통증 원인이 있는지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암은 드문 질환이 아니라 이미 만성질환의 한 가지로 분류되므로, 혹시 암에 걸려도 놀라지 말고 병원을 찾아 침착하게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남**

김은상 장로
정형외과 전문의
살롬교회



영락교회 예비기자로 활동을 시작하며



10년 만에 영락기자학교가 다시 개설되어 2024년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주간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기사, 칼럼, 현장취재, 인터뷰, 편집, 교정, 교열, 영상제작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강의와 실습이 있었습니다. 18명의 수료생들 중 상당수는 이제 영락교회 홍보출판부에서 예비기자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만남』 2월호에 본인의 신앙관, 기자학교에서 공부한 소회, 앞으로의 각오를 전해왔습니다.

‘거룩한 기록’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



영락기자학교 수업은 낯설고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박선이 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12주 동안 진행된 수업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기사와 스토리텔링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문장에서 그치지 않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기자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만남』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 찬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달 가져오시는 잡지를 손꼽아 기다리며 정독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제는 『만남』의 기자가 되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길임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영락 『만

남』의 기자로서 더욱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락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밝고 빛나는 이야기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계신 평범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발굴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젊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대준 집사_ 강서·구로·양천교구
new3nationstory@gmail.com

챗GPT·동영상편집 강의 인상적 ‘스마트 비서’ 생긴듯



언젠가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 중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목사님의 가치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담장을 넘게 할까?’ ‘어떤 교회는 소식지를 전도지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월간지 『만남』은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그런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가지고 수

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상에 남는 수업은 챗GPT와 영상 수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해도 내가 직접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강의 시간을 통해 직접 실습해보니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로 스마트 비서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합니다. 동영상 편집 시간을 통해 유튜브 영상도 똑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발전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현업에서 뛰는 기자분들이 시간을 내어 정성스럽게 강의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가치 전달이라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만큼 훈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편집보다는 기사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글 자체보다 어떤 논조와 편집 의도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므로 신문사의 큰 방향성, 편집 회의와 편집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만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김영란 성도 _ 강동·송파교구
rienkim2025@gmail.com

‘칼럼쓰기’ 강의 큰 도움… 자신감 생겨



12주간 매 주일 오후 2시간씩,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던 차에, 구역장님께서 보내 주신 홍보자료를 보고 교육에 참가해 매우 알찬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칼럼쓰기’인데요. 평소 신앙인이자 영어

교육에 헌신해 온 저의 정체성과 복음적 세계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기에, 통찰력을 가지고 적절한 형식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논점을 전달하는 과정을 실제 기사를 예시를 들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칼럼에 관한 강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소명과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역사의 현장들을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영락 『만남』 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윤영 성도 _ 서대문·은평교구
seung9150@naver.com

숏폼 만들어 SNS 업로드 신세계 경험



교회 월간지 『만남』을 좋아하던 저인 지라 바로 신청한 기자학교에서 각양각색 강의를 현장에서 듣는 것이 모두 흥미로웠어요.

그중에서도 최기원 강사님의 제 10강 <영상실습-숏폼 콘텐츠 이론과 제작>은 당장 활용하게 되었던 점에서 제게 특별합니다. 제가 손수 영락교회의 ‘성탄절 점등식’을 촬영하고, 자막도 넣어 편집한 다음, 점등식에 참석 못 한 지인들에게 보내고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배움의 ‘좋은 기회와 시간’, 그리고 새로이 알게 된 수강생들과의 ‘좋은 만남’까지 더해지니 즐겁게 개근하며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새내기 기자로서 차근차근 봉사할 기회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많은 분에게,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예원 성도 _ 관악·동작·금천교구
davidlove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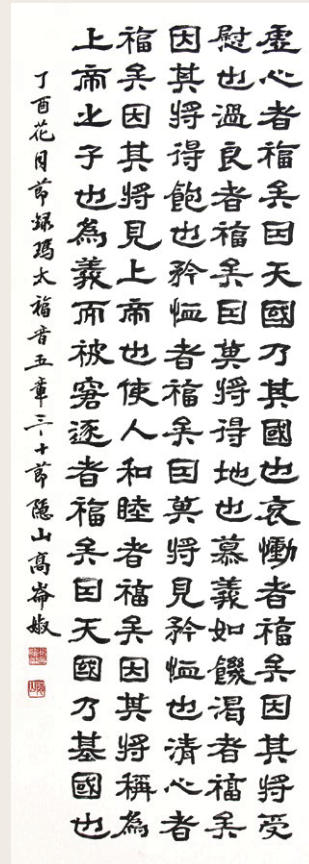
팔복(八福)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3~10)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팔복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적이며 내적인 참된 행복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공감하여 아픔에서 회복시켜주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여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주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팔복의 삶을 실천하고 팔복을 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천국백성이 되게 하소서. **만남**



고윤숙 은퇴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신년예배, 신년기도회 개최

예배위원회·목양부



2025년 1월 1일(수) 새해 첫날 드린 신년예배는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본당과 부속실에서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3:5, 10) 표어를 걸고 새해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나사렛 사람(마태복음2:19~23)'의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나사렛으로 옮겨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나사렛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거룩한 영성의 비전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사렛의 사람으로 함께 출발하자며 성도들에게 올 한해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집사, 구역장, 권찰,

교사, 찬양대원 직분자들이 기립하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성도들의 격려 박수를 받았다.

오전 신년예배에 이어 1월 1일(수) 저녁 7시 저녁기도회를 시작으로 3일(금)까지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3:5, 10)라는 주제로 신년기도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첫 날 기도회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을 시작으로 둘째, 셋째 날 새벽, 오전 예배는 부목사의 말씀으로, 저녁 예배는 김 위임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기도회는 축도 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신임권사 67명 임직식 및 권사헌신예배 드려

권사회

1월 5일 새해 첫 주일 찬양예배 시 예쁘게 한복으로 단장한 신임권사 67명의 임직식이 열렸다. 예배는 오정선 권사(권사회 회장)의 인도로 양혜성 권사(권사회부회장)의 기도, 탁현수 목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가복음 11:1~11)' 제목으로 "예수님은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때 잘 숙련된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 구원사의 엄청난 순간에 어미 나귀를 택하지 않고 새끼 나귀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가는 권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집례하여 신임권사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신임권사 67명은 오른손을 들어 선교를 위해 힘쓰며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했다.



권사회 소개 영상에 이어 오정선 회장의 환영사와 신임권사 대표 이경희 권사의 답사, 권사회 찬양대의 특송으로 권사 임직을 축하했다. 권사회가를 부른 후 축도로 마쳤다.

몽골 중학생 초청 '글로벌 영락한글문화교실' 개최

선교부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국제대학교 부설 MIU중학교 학생 25명을 초청하여 1월 7일(화)부터 15일(수)까지 9일간 '글로벌 영락한글문화교실'을 열어 학생들에게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일정은 오전에는 봉사관 503호 등 교회 내에



서 채플(영성교육), 한글 수업, 그리고 K-댄스 수업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오후에는 외부로 이동하여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VR체험관, 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하여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글로벌 영락한글문화교실'이라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에 이어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선교적 의도를 담았다. 특히 해외 불신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교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역을 확대하여 K-문화를 동경하며 관심을 갖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수련회 열어 사도바울처럼 선교사명 다짐

제2남선교회

지난 1월 11일(토) 제2남선교회(회장 이민하 안수집사)는 신년을 맞아 임원수련회를 열었다. 수련회는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제2남선교회"라는 표어를 선포하며 2025년 사역 계획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제2남선교회 담당 박용준 목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사도행전 19:21)'는 제목으로 사도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 부여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제2남선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5년 제2남선교회의 계획하는 사역은 - 국내 전도 사역 :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 군부대 전도 사역 : 군 장병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전달- 해외 선교 사역 :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한 선교 준비- 영적 성장과 교

제 : 화요기도회 소그룹, 지회별 연합 사역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제2남선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기도로 시작하여, 서로 격려하며 함께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결단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충성합시다...여전도회헌신예배

여전도회

2025년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1월 19일 주일 본당에서 찬양예배로 봉헌했다. '힘차게 비상하는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열린 헌신예배는 제1,2,3,4여전도회 역대회장단, 임원 및 실행위원들이 참여하여 헌신을 다짐했다. 장은희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고은수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장부교 집사

(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갈릴리찬양대의 찬양 후, 초청 강사 김병복 원로목사(보광중앙교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은사 입고 80년을 달려온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견고히 세워가는 헌신을 다짐하자"고 전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



교사역에 쓰일 봉헌의 시간에는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봉헌송과 박유경 권사(제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사역 보고로 지난해 각 1,2,3,4여전도회 중점 선교 사역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본 후, 새롭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며 여전도회기와 축도로 마쳤다.

영·고·찬 정기연주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찬양

지난해 12월 29일(주일) 찬양예배 직후 선교관에서 고등부 주관으로 영락고등부찬양대(영고찬) 연말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지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GENESIS :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주제로 열렸다. 찬양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을 연주하여 은혜를 더했다. 세 개의 무대로 구성한 연주회는 Stage 1. "천지창조(Die Schöpfung) - F. J. Haydn" [거룩한 주의 빛 앞에서, 놀라워 주가 하신 일, 거칠던 땅이 변하여, 거문고 들고 피리를 불어,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Stage 2. 창조주를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김종민", "참 아름다워라 - arr. 황지영", "자연의 찬미 - 정남규", "주님 말씀으로 - C. Berry", "기뻐하라 복



음의 소식 - 홍지열"], Stage 3. 구세주를 찬양 "칸타타 The Lamb 中 - J. Rouse" [면류관 벗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보혈 찬송 모음]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은 역대 고등부 찬양대 출신 선배들과 함께 앵콜 곡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졸업생 전원 '할렐루야' 악보 외워 합창... 보성여중 졸업식 큰 울림



지난 1월 10일(금)오전 11시 보성여자고등학교 졸업식에 이어 오후1시 보성여자중학교 제 10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학교 강당 환경직목사기념관에서 진행된 영락중학교 이날 졸업식은 교목의 지도로 시작하여, 성경 봉독,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이자현 학교장의 축사, 눈물을 자아낸 "하나님의 열심"을 부른 학부모 중창단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져 감동을 자아냈다. 그리

고 졸업생 전원이 악보를 외워서 부른 "할렐루야"는 큰 울림을 주었다. 이는 1988년부터 재직 중인 음악과 오은진 교사의 "'직(職)'을 통한 "선교"라는 소명의식에서 준비한 무대로, 학생들은 평생 할렐루야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규모가 많이 작아졌으나, 모든 순서마다 기독교 학교로서의 건학 이념을 지켜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영락교회 산하 영락, 대광학원의 졸업식 일정

영락중학교 1월 9일(목) 영락고등학교 2월 5일(수)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2월 5일(수) 대광초등학교 2월 13일
 대광중학교 2월 7일 대광고등학교 2월 7일

쾌적해진 영락수련원 사택동… 준공감사예배 열려

영락수련원

영락수련원(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소재)이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환경개선을 마치고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바뀌었다. 지난 1월 10일(금) 영락수련원 사택동 환경개선 공사의 준공감사예배가 열렸다. 1부 감사예배는 박동진 목사의 인도로 차남수 장로의 기도, 김운성 위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로 김운성 목사의 축사, 오동희 장로의 경과보고, 공사를 완수한 한서건축의 박수영 대표와 감리를 맡은 프로젝트 91 건축사사무소의 박진태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준공의 기쁨을 나누었다. 총사업비 7억 정도의 예산이 투

입된 주요 공사는 외부 조명 설치, 데크 포장, 침구 및 생활가구 교체,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었다.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수련원의 숙소동(기숙사)과 5개동이 새롭게 개선되어 수련원을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심터와 복지의 공간이 되었다.



김영하 은퇴장로 99세 별세… 교회장 엄수

김영하 은퇴장로가 지난 1월 1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9세. 1925년 평안북도 선천군 신부면에서 출

생한 고인은 1963년부터 구역장 봉사 30년, 서무부 등을 섬기며

1977년 12월 집사 안수, 1986년 12월 제19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 (재)영락교회 유지

재단 감사.이사, 경조부 부장, 대학부 부장, (재)영락공원묘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제1남선교회 회장, 호산나 찬양대 대장, 친교부 부장 등을 역임하며 1993년 12월까지 시무장로로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1월 4일(토) 오전 9시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로 드려졌다. 이어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김형찬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있었다. 유족으로 김동욱 은퇴장로외 3남을 두었다.



2025년 부서지도 전도사

<p>복합선리팀</p>			<p>상담부</p>		
	정성훈	임서연		이영미	정효진
<p>영아부</p>			<p>유아부</p>		
	김연주			권희주	방하민
<p>유치부</p>			<p>유년부</p>		
	윤혜은	전성은		이빛나	강귀용
<p>초등부</p>			<p>소년부</p>		
	김혜민	신지원		김동현	

C
e
b
c



목정은

주
무
부



홍하림



손종혁

그
무
부



원종인



이하정

대
배
무
부



김철환



김홍재

청
년
회



홍승표



박요섭

교
사
교
육
부



권현준

* _ 은 신임

선교부 자치단체장, 안수집사회/권사회 회장

제1남선교회 회장 문영환 장로

제2남선교회 회장 이민하 안수집사

제3남선교회 회장 지상우 집사

제4남선교회 회장 김광천 집사

제1여전도회 회장 장은희 권사

제2여전도회 회장 고은수 권사

제3여전도회 회장 박유경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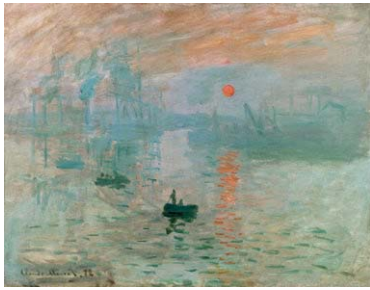
제4여전도회 회장 장부교 집사

부부선교회 회장 김의성 집사

청년선교회 회장 김경미 집사

안수집사회 회장 목홍균 안수집사

권사회 회장 오정선 권사



희망을 상징하는 해돋이처럼… 하나님의 빛과 은혜 충만하길

Impression, soleil levant

1872,
클로드 모네 (Oscar-Claude Monet)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1872년 프랑스 르아브르 항구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작품으로, 인상주의 미술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그림입니다. 모네는 기존의 전통적 회화 방식에서 벗어나, 빛과 색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흐릿한 윤곽과 빠른 붓질을 통해 일출의 찰나를 생생하게 담아냈으며, 그림 속 붉은 태양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1874년 인상파 전시회에서 발표되었고, 당시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인상파'라는 예술 사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모네의 태양처럼,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어 새로운 한 해를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만남**

2025년 2월호 통권 611호

발행 2025. 2.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이재향 인 미 박진현 이현지 / 사진기자 박흥기 원종석 유승헌 / 교열 이광미 김응기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포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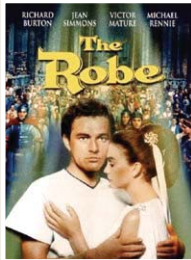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2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성의 (The Robe, 1953) ALL 133분

2월, 9일

감독: 헨리 코스터 출연: 리처드 버튼, 진 시몬즈, 빅터 마추어, 마이클 레니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서기 32년 로마, 명망 있는 원로원 의원의 아들로 여자와 도박에 빠져 지 내던 호민관 마르셀리우스 갈리오(리처드 버튼)는 다이애나와 어릴 적 정혼한 사이이다. 어느 날 마르셀리우스는 노예 경매에서 왕세자 칼리굴라와 경쟁하여 그리스인 노예 드미트리우스(빅터 마추어)를 차지 하는데, 이 일로 칼리굴라의 미움을 사 예루살렘 수비대로 좌천당한다.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마르셀리우스는 예수가 입던 붉은 옷을 손에 넣는데...



흑과백 (The Defiant Ones, 1958) 15 97분

16일

감독: 스탠리 크레이머 출연: 시드니 포이티어, 토니 커티스, 카라 윌리엄스, 론 체니 주니어, 네드릭 영

조커 잭슨과 노알 쿨렌은 구속되어 있고 수감으로 묶여 있지만,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인 차이로 서로 몹시 싫어하는 사이이다. 호송차량의 사고로 그들은 탈출을 하게 되고 경찰에게 쫓긴다. 수감으로 묶여 있어서 헤어질수도 없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이 결국 수감을 끊었을 때, 적개심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서로를 존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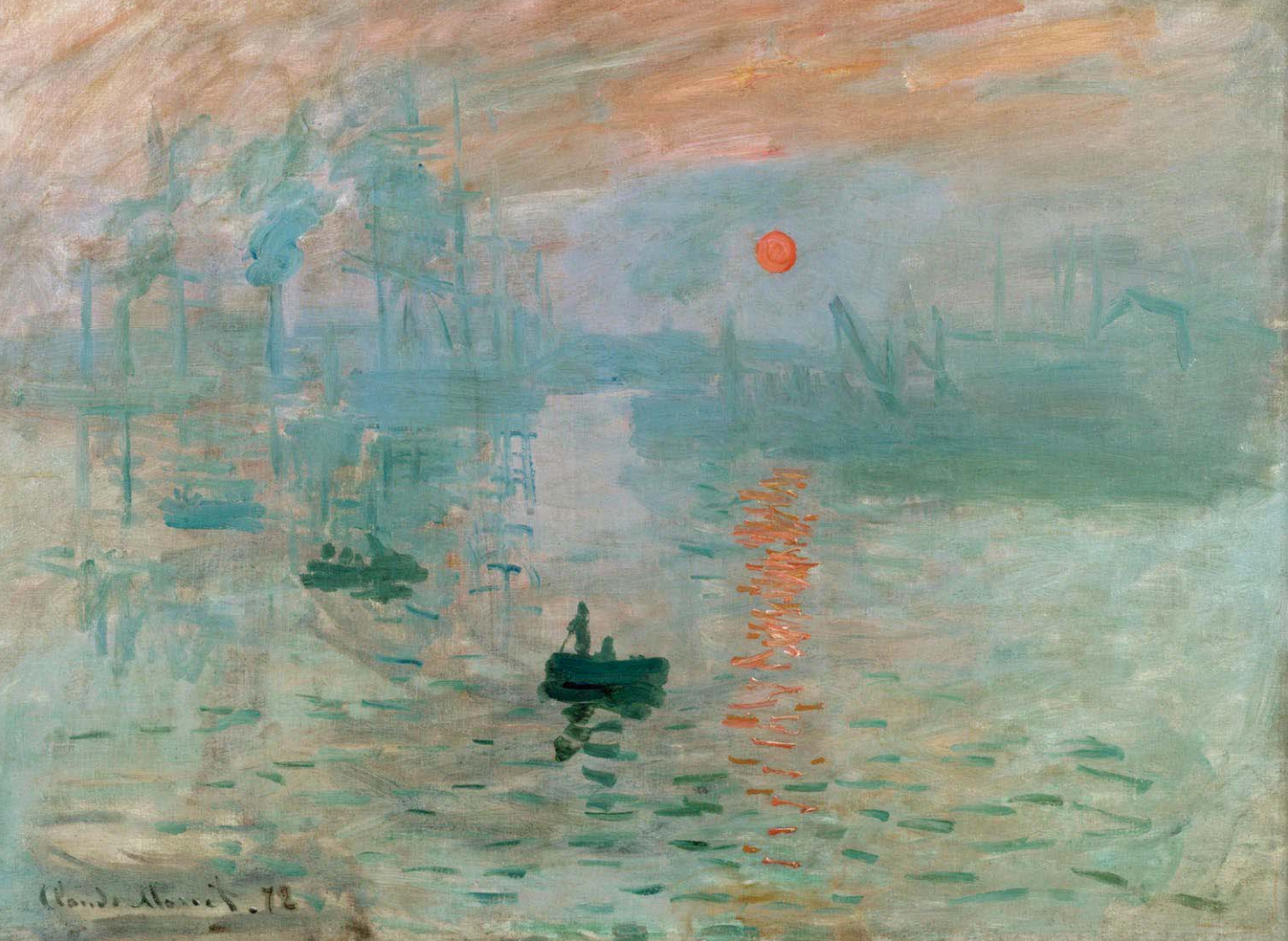


찰리와 초콜릿공장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2005) ALL 114분

23일

감독: 팀 버튼 출연: 조니 뎀, 프레디 하이모어, 데이비드 켈리, 헬레나 보넘 카터, 노아 테일러

전 세계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인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 매일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생산해 세계 각국으로 운반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장을 드나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비밀의 공간이다. 어느 날 윌리 원카는 5개의 원카 초콜릿에 감춰진 행운의 황금티켓을 찾는 어린이에게 베일에 싸인 공장을 견학시켜 주겠다고 선언하는데...



인상, 해돋이 1872

모네(Oscar-Claude Monet)

▶ 작품 내용은 56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